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
	배포일시	2018. 7. 19.(목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광역도시철도과	담당자 • 과장 이우제, 사무관 김인규, 주무관 장영기 • ☎ (044) 201 - 3959, 3960
보 도 일 시	2018년 7월 2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19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경부선 전철 급행화 사업 첫 삽… ‘19년 하반기 준공 금천구청·군포역 대피선 설치공사… 급행 운행횟수 증가, 23분 절감 효과 기대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경부선 급행전철 확대 운영을 위한 “급행화 공사”를 이달 20일 착공한다.
 - 이번 공사는 기존의 경부선 급행전철을 추가·확대 운행하기 위해 금천구청, 군포 2개역에 대피선*을 설치(254억 원)하는 것으로서 7.20일 착공하여 ‘19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.
 - * 일반전철이 승객을 승·하차 하는 동안 급행전철이 통과하여 지나갈 수 있는 선로

- 급행화 사업이 완료되면 급행전철 운행횟수 증가, 환승시간 단축 등으로 경부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출·퇴근이 더욱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
 - 먼저, 일반→급행 전환을 통해 하루 20회 이상 급행 운행횟수가 증가(現 34회)하여, 현재 50분의 급행 운행간격이 약 30분 수준으로 단축 가능하게 된다.
 - * 급행 이용 시(용산~천안) 일반 대비 23분 절감 가능(일반 115분, 급행 92분)
 - 또한, 경부선(서울~천안) 전철과 과천·안산선(오이도~남태령) 전철의 환승역인 금정역(하루 약 25만 명 환승)에도 급행전철 정차가 가능해져 출·퇴근 시 급행전철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
- 아울러, 추가 운행되는 급행전철은 **청량리 또는 광운대역까지 바로 운행되어** 중간에 일반열차로 갈아타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**환승시간도 절감***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* 사례) 천안→종로 이동 시 일반열차 환승시간 약 5분 이상 단축 가능

<경부선 급행화 사업 기대효과>

	현재(급행전철 기준)	개선
운행횟수	약 50분 간격, 일일 34회	약 30분 간격, 일일 54회 이상
금정역 정차	불가능	정차 가능
운행구간	용산(서울)~천안	청량리~천안 (일부 증편 노선 해당)

* 열차 운행 세부계획은 공사 완료 후 열차운행계획 변경을 통해 추후 확정

- 급행전철 확대로 불가피하게 정차횟수가 감축*되는 일부 역은 향후 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행 시간 조정 등을 통해 국민의 전철 이용에 **불편이 최소화** 되도록 할 계획이다.

* 일반→급행 전환으로 당초 정차하던 일부 역을 무정차 통과하므로 급행전철 증편 횟수만큼 정차횟수가 감축(약 △20회)

-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민의 출·퇴근 시간 단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반영된 “수도권 전철 급행화 방안”을 발표(17.7) 하였으며, 이번 사업도 이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.
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시설개량이 필요 없는 노선은 운행계획 변경을 통해 지난 두 차례 급행전철을 신설·확대(17.7, 18.7) 한 바 있으며, 수도권 주요 거점의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김인규 사무관(☎ 044-201-3959)에게 연락주시기
 바랍니다.